의생활

고대 그리스 神들의 복식연구

-올림푸스의 12神을 중심으로-

임 상 임*(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부교수)
김 은 미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학과 박사과정)

고대 그리스는 다채로운 신화의 민족으로, 그리스인들은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푸스의 12神을 섬겼다. 또한 그들은 神人同形論의 神觀으로 神들을 철학, 예술, 문학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신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陶器畵를 통해 고대 그리스신들의 복식을 고찰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 인간과 神의 복식의 차이점을 살펴보아 그리스 복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내용은 통시적으로 아티카 도기가 출현한 기원전 700년경부터 기원전 323년 사이의 자료수집이 가능한 도기화(그림화보) 총 325점 중에서 올림푸스 12神이 보이는 109점을 선별하여 각 신들의 복식을 의복, 頭飾과 신발, 장신구, 지물(상징물)등으로 분류, 분석하여 각 神들의 복식 특징을 주관적 해석에 의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직접 실물을 접하지 못하고 문헌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색상과 재질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올림푸스의 12神들은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인은 유재원의 '그리스 신화의 세계' 에 근거하여 제우스, 헤라, 아폴론, 아프로디테, 아테나, 헤르메스, 아르테미스, 헤파이스토스, 데메테르, 포세이돈, 디오니소스, 아레스로 정하였다.

以上의 내용에 의한 결과는 첫째, 올림푸스의 12神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각각의 神들이 관장하는 역할을 표현하는 상징물과 神의 위엄을 상징하는 笏을 들어 인간과 구분되었다. 둘째, 대부분의 男神들은 맨몸에 상류층에서 사용된 긴 히마티온을 입고, 머리는 긴 웨이브에 화환이나 필릿으로 장식하였으며 모자, 신발, 장신구는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다만, 헤르메스는 다른 男神과 달리 히마티온 대신 클라미스를 입고, 머리에 필로스를 쓰고 날개 달린 부츠를 착용하여 여행자의 수호신임을 표현하였고, 아레스 또한 짧은 키토니온 위에 흉갑을 하고, 머리에 헬멧을 쓰고 창과 방패를 들어 軍神의 모습을 복식을 통해 표현하였다. 셋째, 女神들은 주로 키톤위에 히마티온을 입고 다양한 형태의 머리형에 폴로스, 다이뎀등의 冠을 쓰거나 스펜돈, 삭코스, 화환, 필릿 등의 장식을 하였으며, 후반부로 가면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였는데, 이는 신인동형론에서 비롯된 결과라 사료된다. 모자, 신발은 男神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착용하지 않았지만, 아테나는 적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어깨에 아이기스를 둘렀으며 머리에 헬멧을 쓰고, 손에 창과 방패를 든 모습으로 전쟁의 女神임을 표현하였다. 넷째, 神과 일반인들의 복식의 큰 차이점은 없었으며 단지, 책임영역을 상징하는 지물의 착용여부에 따른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